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2023년 11월 2일 | 책임조사역(G3) 김재원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² 	인구 1,006만 명 (2023 ^f) 	정치체제 연방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GDP 5,092억 달러 (2023 ^f) 	1인당GDP 50,602달러 (2023 ^f) 	통화단위 the Emirati Dirham (AED) 	환율(U\$기준) 3.67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emirates)으로 구성된 연방 군주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만과 접경하고 있으며 이란과는 페르시아 만을 사이에 두고 있음.
- 중동 산유국 중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 다각화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2023년 두바이 엑스포시티에서 환경분야 국제 정상회의인 COP28을 주최(11~12월 예정)하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함.
- 2022년 국제유가 인상, 민간소비 증가, 부동산 부문의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7.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했으나 2023년 OPEC+ 추가 감산 결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경제성장률은 3%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연방 내 여타 토후국에 대한 아부다비의 경제적 지원, 아부다비와 두바이 간 적절한 권력 배분으로 정국 안정이 유지되어 국내 정치적 리스크는 낮으나, 중동 지역의 복잡한 역학관계(특히 이란과의 관계) 및 주변국의 내전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0. 6. 18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04), 이중과세방지협약('05), 군사협력협정('07),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08), 문화협력협정('08),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0), 항공협정('10), 세관협력협정('15), 사증면제 양해각서('16), 범죄인인도조약('17), 형사사법공조조약('17), 이중과세방지·탈세·회피예방협약('20),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3)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3,653,611	3,974,772	3,966,846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자동차
수입	5,692,741	7,318,737	15,492,751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512건, 2,702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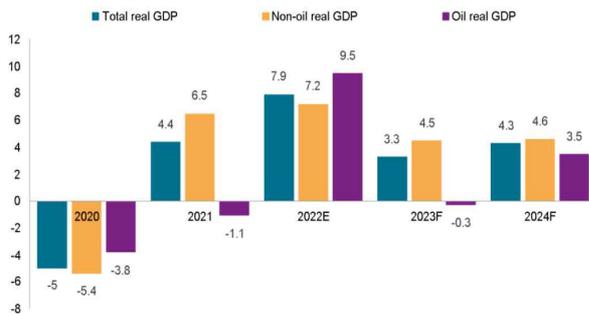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e
경제성장률	1.1	-5.0	4.4	7.9	3.4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1	-0.1	4.8	3.1
재정수지/GDP	2.6	-2.5	4.0	9.9	5.1

자료: IMF, EIU

국제유가 및 산유량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큰 편이나, 비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률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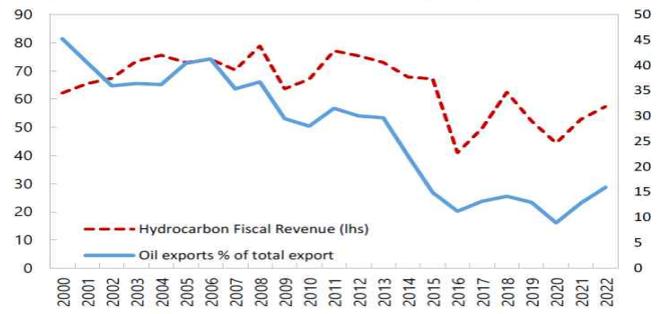
- UAE는 석유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국제유가 및 산유량 변동이 국가의 재정수입과 이에 따른 대규모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나, 2014년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정부의 산업 다각화 정책 노력으로 중동 산유국 중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 다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 1] UAE 부문별 연평균 GDP 성장률(%)



출처: Central Bank of the UAE

[그림 2] 원유 수출이 UAE의 총수출 및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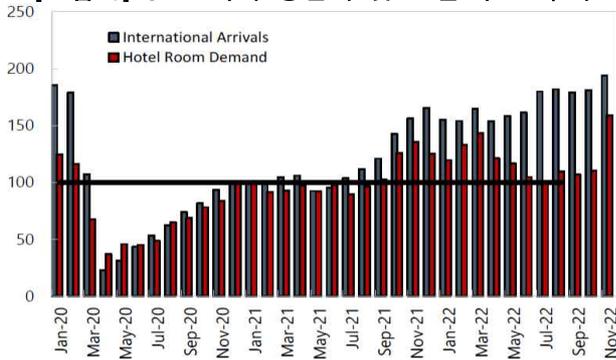
출처: Country Authorities; IMF staff estimates

- 2020년 국제유가 약세 및 OPEC+감산 합의(산유량 감소)로 인한 석유 부문 위축과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영업활동 위축 및 민간소비 감소 등 전방위적인 경기냉각으로 2009년 (-5.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경제가 -5.0%의 역성장을 시현함.
- 두바이 경제의 주요 산업이자 세계 경기에 민감한 무역업, 물류업, 관광업 등 비석유 부문의 타격이 컸으며, 두바이 방문 관광객 수가 2019년 16.7백만 명에서 2020년 5.5백만 명으로 급감할 정도로 관광업의 심각한 부진이 경제 하방압력을 가중시켰음.

국내경제

- 2021년에는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로 소비가 살아나고 세계경기 회복으로 국제원유 수요가 급증한 반면 미국의 원유 생산 차질(2021.8월 허리케인)과 OPEC+의 감산 계획 이행 등 공급 제한으로 원유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 원유 수출 수익이 증가하여 경제가 4.4%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함.
 - * 브렌트유 가격 추이(U\$): 71.1('18) → 64('19) → 42.3('20) → 70.4('21) → 99.8('22)
 - * UAE 일평균 산유량(만 배럴): 305.8('19) → 209.5('20) → 271.8('21) → 321.5('22) → 322.1('23)
- 2022년에는 국제유가 인상 지속으로 원유 수출 수익이 증가('21년 330억 달러→'22년 819억 달러)하는 동시에 비석유 부문의 성장세 지속,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두바이 엑스포 개최(2021.10.1.~2022.3.31.)를 전환점으로 급성장한 부동산 시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2022.11.20.~12.18.)에 따른 반사이익 등에 힘입어 7.9%의 고성장률을 보였음.
- 2022년 UAE의 일평균 산유량은 321.5만 배럴로 2021년 대비 큰 폭의 증가율(18.2%)을 보였으며, 외국 인투자 제도 개선 노력으로 2022년 FDI 유입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227.4억 달러를 기록함.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로부터의 체류자 유입 및 러시아발 부동산 투자 활황이 내수 진작을 촉진함.
- UAE는 카타르 월드컵 방문객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수행하며 관광업 특수를 맞이함.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 도하행 신규 항공편 90여 편 중 40편이 UAE를 출발한 것으로 파악되며, 두바이 팜 주메이라 내 신축 호텔을 월드컵 방문객에 할당(카타르 숙박 수요 초과)하고 UAE 방문객의 입국 수속을 간소화하는 등 월드컵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양국 간 공조가 이루어짐.
- BBC 뉴스는 2022년 1사분기 중 러시아인들의 두바이 부동산 구매가 동안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보도함. 이는 UAE가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과 달리 제재 비대상 러시아 국적 이민자들의 UAE 입국을 허가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도함

[그림 3] UAE 해외 방문객 및 호텔 수요 추이



[그림 4] UAE 주거용 부동산 가격 추이



출처 : OPEC, Haver Analytics;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and IMF staff estimates.

국내경제

- 2023년에는 OPEC+ 추가 감산 결정 및 국제유가의 전년 대비 하향 안정세로 원유 수출 수익이 감소하고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가 소멸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발 부동산 디폴트 위기,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금융 등 서비스 분야 투자가 위축되어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3.4%로 전망됨. 다만, 관광 부문(2022년 1,176억 디르함, GDP의 9%)의 성장이 지속되고(2031년 GDP의 31% 예상, UAE 경제부 자료) 두바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등 비석유 부문 성장률이 견고한 점은 향후 경제성장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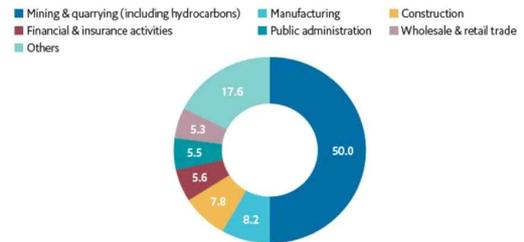
- 2023년 9월 UAE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6.7로 33개월 연속 50을 상회하였으며, 고용률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회복 동향을 보임.

*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S&P Global 발표. 비석유 부문(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경기동향 지수

-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쟁 양상에 따라 다양한 유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10월 30일 현재 유가는 배럴당 86.93달러(브렌트유 연결선물 기준)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부다비)** UAE 원유 생산량의 96%를 담당하는 아부다비는 제조업 분야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높은 편임.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 세계경제 긴축 기조로 원유 가격 및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대폭 하락이 전망되나('22년 9.3% → '23년 2.6%, FitchSolution BMI report),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현재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원유 수출 수익에 대한 전망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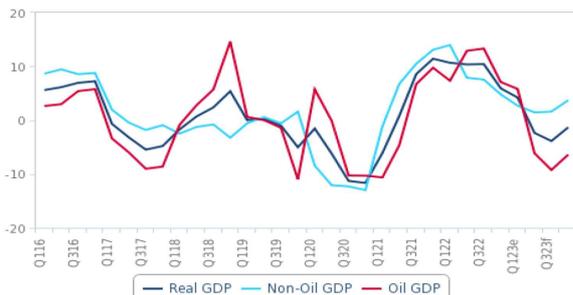
[그림 5] 아부다비 산업별 경제구조(비중, %)



출처: Abu Dhabi Statistics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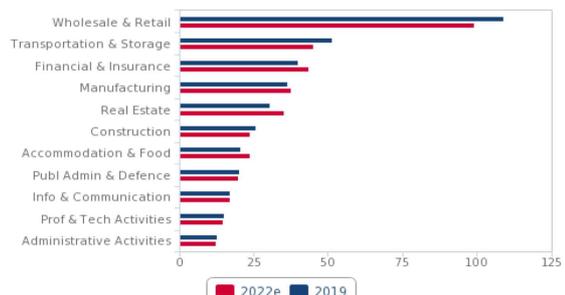
- (두바이)** 비석유 부문의 GDP 기여도가 71%(2020년 기준)인 두바이는 도소매업과 외국인투자, 금융·관광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3년 부동산 시장 성장(주택 판매가격 전년 대비 4.6% 상승), 비석유 부문(교통·물류[GDP의 14%] 10.3%↑, 숙박·음식·서비스 5.6%↑)의 성장으로 1분기 2.8%의 경제성장률(OECD 회원국 평균은 1.6%)을 기록함. 두바이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2023년 상반기 8.6백만 명으로 2019년 8.36백만 명을 초과), 높은 객실 점유율(83%)로 관광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됨. 다만, 2023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기 위축과 대출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0.7%p 하락한 3.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FitchSolution BMI report).

[그림 6] 아부다비의 GDP성장률 추이(%)



출처: BMI

[그림 7] 두바이의 산업별 GDP성장률(%)



출처: Dubai Statistics Center

국내경제

- 2024년에는 석유 및 비석유 부문이 동반 성장하고, 연방차원의 체계화된 투자환경 조성 과 개혁 추진 이 성과를 거두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증가('23년 210억 달러 → '24년 232억 달러 예상)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두바이 엑스포를 계기로 전환기를 맞이한 관광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계지출 증가로 내 수 경기가 회복되고 산업다각화 노력으로 산업계 전반에 고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양한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향후 4%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표 1] 기관별 UAE 2023~24년 경제성장률 전망

연도	IMF(10월)	중앙은행(6월)	EIU(9월)	FitchSolutions(9월)	IHS Markit(9월)
2023년 ^e	3.4%	3.3%	4.0%	2.4%	3.0%
2024년 ^f	4.0%	4.3%	3.6%	4.0%	4.1%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국내경제

국제유가 및 부동산 가격변동과 물가지수의 높은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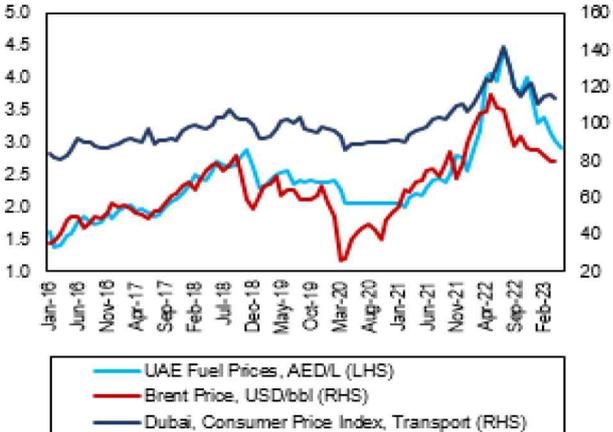
- 2013년부터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과열로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료가 급등하며 소비자물가도 상승세를 보였음.
- 2015년 정부의 보조금 축소 정책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국제유가에 연동하고, 저유가 기조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등이 하락해 2016년에는 평균 교통비가 4.1% 감소했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검토에 맞춰 UAE 통화당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유동성 공급 증가가 제한되고, 부동산 경기 과열 진정으로 임대료·매매가가 하락해 물가가 하향 안정화됨. 그러나 2018년 1월 부가가치세(5%) 도입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솔린, 디젤 가격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며 소비자물가는 다시 상승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추이(%) : 0.7('12) → 1.1('13) → 2.3('14) → 4.1('15) → 1.6('16) → 2.0('17) → 3.1('18)

- 2019년에는 아부다비 및 두바이의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가 하락하여 디플레이션(-1.9%)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성장 부진, 외국인 거주자의 대거 유출로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심화되며 디플레이션(-2.1%)을 지속함. 2021년에는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민간소비 회복,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디플레이션(-0.1%)이 지속됨.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켜 식품,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농산물의 80% 이상)가 높은 UAE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촉진시킴. 물가지수 측정 대상 품목의 12.7%를 차지하는 대중교통 부문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년 동기(1사분기) 대비 22% 상승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함. 6월 휘발유 가격이 2월 대비 60% 상승하고 급여 인상률이 평균 4.4% 수준(WTW Poll, '22.9월)을 기록했으며, 노동인구 유입 증가와 내수소비 증가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지난 3년 간(2019~21년) 마이너스를 지속하던 소비자물가는 플러스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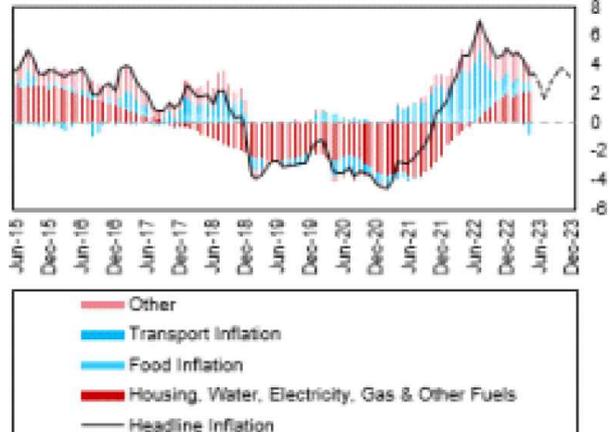
* 노동인구 증가율(전년 대비) : -3.7%('20) → 2.4%('21) → 2.2%('22)

[그림 8] 유가 변동에 따른 연료비 & CPI 변동(%)



출처 : FCSC, Macrobond, BMI

[그림 9] 두바이 인플레이션 항목별 기여도(%)



출처: Dubai land Department, FC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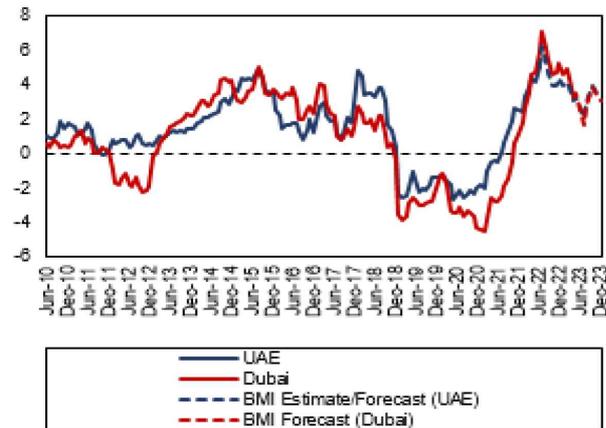
국내경제

- UAE의 수입물가 상승 폭은 여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UAE 정부는 2022년 4월 필수소비재 가격 모니터링 및 가격 인상 사전허가제를 도입하여 필수재 물가를 관리하고 있음.
- UAE 경제부는 40개 매장 300여 개 품목*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11,000개 품목의 가격 인상 희망 시 사유 및 증빙서류를 사전 제출하고 신청토록 의무화함.
- * 해산물, 육류 및 가공육, 빵, 곡물류, 유제품류, 달걀, 식용유, 채소 및 과일, 생수, 주스, 청소도구 등.
- 2023년 인플레이션은 두바이의 임대료, 주택가격 및 전력요금 상승이 주도(두바이 CPI basket의 40.6%, UAE의 35.1%)한 것으로 추정됨. 연초 국내 유동성 증가, 달러 연동 디르함화 가치 하락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교통·연료비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7%p 하락한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고정환율제 채택 이후 미 연준에 연동한 통화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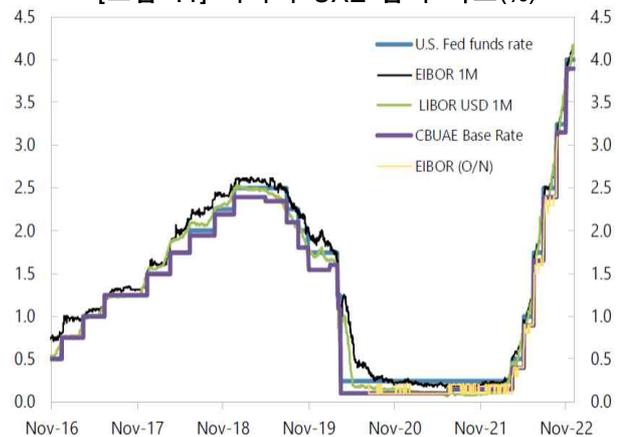
- 2023년 UAE 중앙은행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을 반영해 5.4%의 정책금리(2023.9.2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UAE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미 연준의 정책과 동일선상에서 움직이며, 이를 위해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를 반영해 52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음. 풍부한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현행 고정환율제(달러당 3.67디르함)를 향후에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달러 페그제(1997년)를 실시하고 있는 UAE 중앙은행은 2020년 7월 이후 기준금리를 미 연준의 IORB(Interest on Reserve Balance)에 연동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 연준은 IORB를 연방기금금리보다 10bp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

[그림 10] UAE 및 두바이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FCSC, Macrobond, BMI

[그림 11] 미국과 UAE 금리 비교(%)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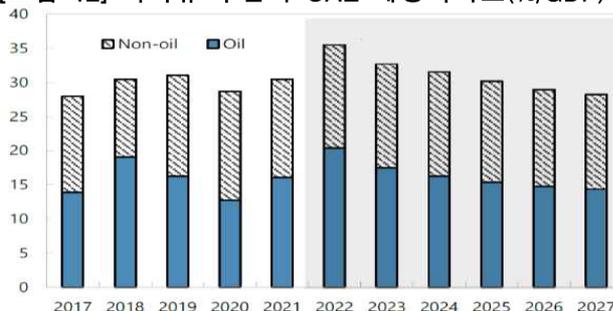
참고 : EIBOR : The Emirates Interbank Offered Rate

국내경제

재정수입의 석유수출 의존도가 높으나 다양한 자원확충 노력으로 재정수지 흑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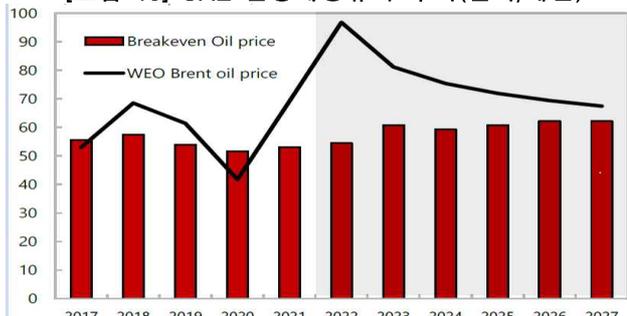
- UAE는 석유 수출 수입(收入)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적자 여부와 폭이 좌우되고 있음. UAE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석유 부문에서 재정수입원을 발굴하고 정부지출을 감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결과, 최근 5년 간 2020년(팬데믹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기록)을 제외하고 매년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
- 저유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UAE를 포함한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 회원국은 2015년 12월 기존의 무세(無稅) 정책을 포기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 UAE는 2018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GCC에서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함.
- * 6개 회원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 2020년 재정수지는 저유가 기조와 OPEC+ 감산 협의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산유량 감소, 재정수입 감소(세금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폭넓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수지가 전년(GDP 대비 2.6%) 대비 크게 악화된 GDP 대비 -2.5%의 적자를 기록함.
- 2021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재정수입이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고유가 지속, 수출 증가,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GDP 대비 9.9%의 흑자를 회복함.
- 2023년에는 법인세 도입(6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 및 OPEC+ 감산 이행으로 원유 생산량을 통제*해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원유 수출가격 하락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5.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 OPEC 회원국인 UAE는 2023년 OPEC+ 회의 결과에 따른 쿼터 기준을 준수해 왔음. 2022~23년 일평균 3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왔으나 2024년에는 330~340만 배럴로 증산할 계획을 밝힘.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기준 UAE의 실질 원유 생산능력은 450만 배럴임.
- 2023년 석유 부문의 수익 감소(3.8%p 하락 전망, Fitch Solution),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으로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이 25.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22년 24%)했으나, 양호한 균형재정 유가(배럴당 55달러) 수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12] 비석유 부문의 UAE 재정기여도(%/GDP)



출처 : Haver Analytics; and IMF staff estimates

[그림 13] UAE 균형재정유가 추이(달러/배럴)



국내경제

- 2024년에는 견고한 내수시장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지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의 재정관리 목표가 소비 진작에서 경기부양책(Ghadan 21, 기업 대출 완화 및 운영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해 선택적이고 집중화된 투자 양상으로 전환하며 재정수지는 정부의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e
경 상 수 지	37,321	21,067	47,995	92,740	84,041
경상수지/GDP	8.9	6.0	11.6	18.3	16.5
상 품 수 지	80,452	60,305	79,036	125,857	113,115
상 품 수 출	313,749	272,121	323,278	426,274	439,969
상 품 수 입	233,297	211,816	244,242	300,417	326,854
외 환 보 유 액	106,381	102,164	123,767	130,911	158,698
총 외 채	279,670	328,247	346,179	366,329	384,846
총외채잔액/GDP	66.9	93.9	83.4	72.3	75.6
D.S.R.	9.8	11.5	8.5	8.6	10.6

자료: IMF, EIU 및 OECD.

2023년 경상수지 흑자는 국제유가 하향 안정과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로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는 UAE의 경상수지는 석유 수출에 힘입어 1980년 이래 2022년까지 흑자를 지속하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증가, 팬데믹으로 인한 에너지 국제수요 감소, OPEC+ 감산 합의 이행, 에너지 수출액 감소와 국경 봉쇄에 따른 관광업 및 연관산업 위축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전년(8.9%)보다 2.9%p 하락한 6.0%를 기록하였음.
- 2021년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액 및 재수출액 증가('20년 1,280억 달러→'21년 1,475억 달러), 두바이 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 수입 증가 등으로 GDP의 11.6%의 흑자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고유가 기조(전년 대비 평균 41% 상승) 지속, 산유량 증가 등으로 인해 UAE의 원유 수출액(819억 달러, 전년 대비 약 60% 증가)이 증가하며 동 비율이 18.3%로 급등하였음.
- 2023년에는 원유 생산량 감소 및 국제유가 하향 안정(배럴당 '22년 99.8달러→'23년 83.2달러[EIU 전망])으로 원유 수출액이 2022년 대비 감소(594억 달러)할 것으로 추정됨. 성장세에 있는 관광업의 경우 2023년에도 UAE 방문 관광객 수는 10%의 증가율('22년 55% 증가)을 보이겠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중동 정세와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가 예상되며 관광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비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했으나 급여의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있어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16%대로 전망됨.

* 본원소득수지(U\$) : -8억('21) → -48억('22) → -64억('23)

* 이전소득수지(U\$) : -560억('21) → -620억('22) → -657억('23)

- 2024년에는 국제유가 회복으로 원유 수출 수입(收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주춤하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외채상환능력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1년부터 감소하다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4년 13.8%에서 2019년 26.8%로 상승하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외차입 증가로 인해 41.1%로 급등하였음. 동 비율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로 35.9%로 감소하였으며(IMF), 2022년에는 고유가 기조 및 수출 증가로 재정수입도 증가하며 31.1%로 하락하였음.
- 202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대의 흑자가 전망되나, 정부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부채를 늘려감에 따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관리 및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로 채무상환능력 양호

-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23년 말에는 전년(1,309억 달러) 대비 약 21% 증가한 1,5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약 4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외채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UAE의 총외채잔액은 2019년 2,797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84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나,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유가 지속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1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음. 2023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년(8.6%) 대비 증가한 10%대로 전망되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이 63.5%(2022년 77.0%)로 전망되어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임.

* D.S.R. : 11.5%('20) → 8.5%('21) → 8.6%('22) → 10.6%('23^f)

[표 2] UAE의 연도별 외채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총외채잔액(억 달러)	2,797	3,282	3,462	3,663	3,848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419	421	376	490	637
총외채잔액/총수출(%)	65.3	89.6	78.3	64.3	63.8

자료: OECD, EIU

아부다비 정부의 지원으로 두바이 부채상환 위기 극복

- UAE 연합국 중 두바이는 막대한 차입을 통해 정부 주도 부동산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2019년 기준 약 U\$800억 규모의 대외채무와 일부 만기도래 부채상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아부다비 정부가 두바이 재정지원기금¹⁾ 앞 지원 형식으로 200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현재 원금상환 없이 대출을 유지 중으로 만기는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 ('09.3) UAE 중앙은행, 두바이 정부 발행 채권 매입(U\$100억)
- ('09.11) National Bank of Abu Dhabi 및 Al Hilal Bank, 두바이 정부 발행 채권 매입(U\$50억)
- ('09.12) 아부다비 정부, 두바이 정부 앞으로 U\$50억 대출('09.12 만기 수쿠크 채권 상환용)

1) 두바이 경제에 중요한 기관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9년 7월 설립되었으며, 아부다비 정부 지원금액을 재원으로 U\$200억, 3개 tranche로 구성되어 있음.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외에도 다수의 대규모 국부펀드 운영

- UAE는 외환보유액 외에도 석유수출 자금 등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중장기 수익성을 추구하는 다수의 대규모 국부펀드를 운영 중이며, 특히 아부다비는 세계 4위, 두바이는 12위 규모의 국부펀드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국부펀드는 미래산업(테크놀로지,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등) 및 인프라 투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3] UAE 소유 주요 국부펀드 자산 현황

세계순위*	국부펀드	설립년도	소속 정부	총자산(백만달러)
4위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1976년	아부다비	853,000
12위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2006년	두바이	320,380
13위	Mubadala Investment Company PJSC	2002년	아부다비	287,474
16위	Abu Dhabi Developmental Holding PJSC	2018년	아부다비	159,000
20위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2008년	연방정부	87,000

* 국부펀드 총자산 기준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조회일자 2023.10.12.)

구조적취약성

석유 부문에의 경제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산업 다각화 노력 필요

- 2022년 말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는 UAE의 원유 매장량이 1,130억 배럴(세계 5위)이며, 2021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8.2조 m³(세계 6위)라고 발표함.
- 중동 산유국 중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적자본 부족,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과도한 정부 고용 비율, 취약한 제조업 기반 등의 한계로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정부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다양한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 S&P에 따르면 아부다비의 경우 GDP의 50%, 정부 수입의 약 90%를 석유·가스 부문에 의존하고 있음.
- 석유·천연가스 산업은 UAE 정부의 주 수입원(재정수입의 60%)으로, 석유 수출은 전체수출의 약 21%를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 재정·금융 시스템 건전성 확보,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유발해 왔으며 UAE 경제는 에너지 국제시장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 국제유가 부양을 위한 OPEC+의 감산 정책으로 쿼터 할당량에 따른 생산량과 수출량에 제한이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 시 풍부한 원유 확인매장량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UAE 정부가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세계적인 탈석유화 기조에 합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산업 다각화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 GDP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비중은 2014년 이후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UAE의 GDP의 석유·가스 부문 비중(%) : 34.1('14)→21.8('15)→19.3('16)→20.5('17)→26.0('18)→22.7('19)→17.2('20)

[표 4] UAE의 부문별 GDP 성장률 추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e	2024년 ^f
전체	-5.0	3.9	7.6	3.9	4.3
석유 부문	-3.8	-0.7	10.1	3.0	3.5
비석유 부문	-5.4	5.8	6.6	4.2	4.6

자료: Central Bank of UAE, Annual Report 2022

노동시장 불균형과 노동인권 문제, 에미리티제이션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고용 기피 현상

- EIU에 따르면 자국민인 에미라티(Emirati)의 총 인구 내 비중이 2006년 약 20%에서 현재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민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은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2020년 기준 인도인 27.5%, 파키스탄인 12.7%, 방글라데시인 7.4%)는 저임금, 저기술 기반의 아시아 출신으로,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제공을 위해 임금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내수소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음. 또한 UAE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집단행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노동인력 유인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구조적취약성

- 정부는 부동산 매입자, 투자자, 기술자 등을 위한 장기 비자와 영주권 도입, 부유층 및 젊은 기술 인력의 국내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 보장 범위가 축소되거나 혜택이 사라졌을 때 인력 유출 가능성도 존재함.
 - * 알코올 라이선스 취득없이 주류 구매 및 소비를 허용하고 비혼 남녀의 동거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외국인 유입과 거주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진작
- UAE 정부는 2022년 5월 자국민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미라티제이션(Emiratization)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후속 결의안을 채택('22년 5월 개정법 Ministerial Resolution No.(279) 승인)하여 미준수 기업에 대해 기부금을 징수하고 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장하는 등 법을 재정비하고 법 이행 및 준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향후 5년 간 매년 총 인원(임원, 매니저, 전문가, 숙련노동자 한정)의 2%를 자국민으로 채용할 의무를 지니며, 정부는 2026년까지 해당 기업의 자국민 고용비율을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3년 1월부터 자국민 할당 의무를 위반시 직원 1명당 벌금(매월 6,000디르함)을 부과 중이며, 민간 기업의 경우 법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기업을 3가지로 분류하고 행정 수수료 등에서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과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을 고용하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민간기업에 취업 중인 자국민 노동자도 양호한 노동환경과 고수입을 보장하는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해 이직률이 높은 편임.
- 자국민 노동시장 참여율은 47.6%로, 취업자의 90%가 연방정부, 토후국 정부 및 소속 공기업에 취업 중인 것으로 집계됨.

[표 5] UAE의 총 근로자 중 자국민 비중 현황(% , 2019년)

	Total	Non-Emirati	Emirati
Federal government	3.8	1.9	40.5
Local government	6.5	4.9	37.7
Private sector	70.7	73.9	8.0
Private households	12.7	13.4	0.0
Other	6.3	5.8	13.6
Total	100.0	100.0	100.0

출처: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zation

성장잠재력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기준에 맞춘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마련

- 2021년에는 UAE 국적자의 의무 지분 보유 및 지사 연락사무소의 현지인 서비스 에이전트 요건을 폐지하고 외국인이 투자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다만 연방정부 법 개정 후에도 지분한도와 적용 산업에 대한 결정은 개별 토후국에게 재량권이 있음.
- * 외국 기업이 100% 지분 보유 가능 분야(아부다비 1,105개, 두바이 1,059개)를 경제개발부 웹사이트에 게재
-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석유·에너지 기업, 은행, 상업용 부동산 제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율도 GCC 공통관세율(5%)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입한 물품을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 주고 있음.
- 이슬람 국가(목·금요일 또는 금·토요일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공식 주말을 '금~토'에서 '토~일'로 변경했으며, 무슬림이 금요일 대예배(오후 1시 15분)를 여는 금요일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7시 30분부터 정오까지로 제한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함. 이러한 근무형태 변화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 분야에 우선 적용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계획임. 국제 관례에 맞춰 주말 휴일을 변경함으로써 UAE와 거래하는 국가들의 금융·무역·경제적 교류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으며 UAE 기반 다국적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41개 평가대상국 중 종합 25위(한국 13위)에 올라 MENA 지역에서 이스라엘(20위)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도로(7위), 공항(7위), 항만(12위)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휴대폰 가입률(2위) 등 ICT 수용도도 한국과 더불어 세계 1위를 차지함.
- 2020년 세계은행의 기업여건(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90개국 중 전력 공급 부문 1위, 건축 허가 부문 3위, 자산 등기 부문 10위, 계약 이행 부문 9위 등 종합순위 16위로 MENA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함.
- * 평가대상국(190개) 중 16위, GCC 국가들 중 1위로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종합순위 60위)가 차지했음.
- UNCTAD에 따르면 UAE는 FDI 유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227억 달러로 전 세계 FDI 유입 증가율(평균 -12%) 대비 높은 수준임.
- * 연도별 유입액(억 달러): 103.9('18) → 178.8('19) → 198.8('20) → 206.7('21) → 227.4('22)

지방정부와 연계한 자유무역지구 개발로 재수출 부문의 고성장 지속

- UAE 정부는 향후 7년 동안 재수출 부문의 100% 성장을 목표로 24개의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국가 재수출 위원회(National Re-export Committee) 주도로 각 토후국 정부와 연계해 자유무역특구를 개발하고 국가 간 양자무역협정 체결로 재수출 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22년 UAE의 재수출 무역액은 1,8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으며, 비석유 부문 수출의 상당 부분이 재수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주요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인도, 오만, 쿠웨이트, 중국, 미국, 홍콩, 벨기에 등이며, 주요 재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전화, 다이아몬드, 항공기 부품, 헤드폰, 자동차 부품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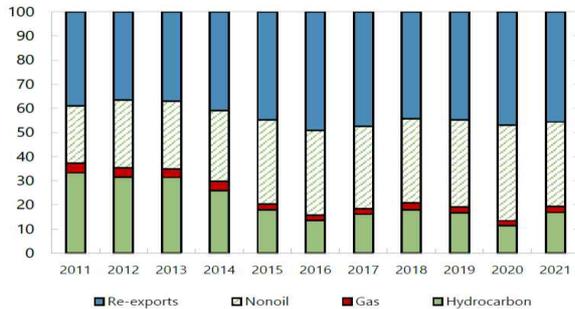
성장잠재력

[표 6] UAE 항목별 수출액 추이(억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e	2023년 ^e	2024년 ^f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579	524	313	546	826	726	699
천연가스	94	77	54	83	129	113	108
비석유 제품	1,118	1,130	1,074	1,130	1,178	1,218	1,319
재수출	1,419	1,407	1,280	1,475	1,843	1,852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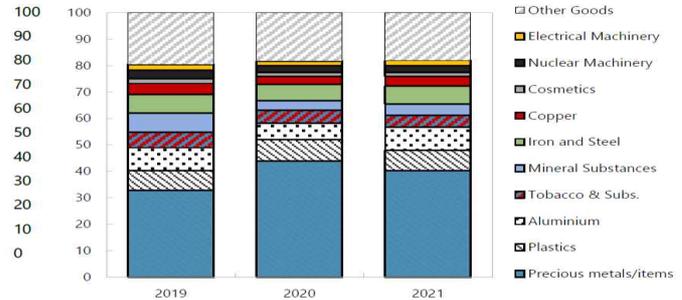
출처: IMF staff calculations and estimates

[그림 14] 항목별 수출 기여도 구성(%)



출처: IMF staff calculations and estimates

[그림 15] Top 10 비석유수출품 구성(재수출 제외)



구매력을 갖춘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소비시장 확대 및 비대면 플랫폼 확대

-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GCC 내 GDP 규모가 2번째로 큰 중동의 물류 거점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회복세로 진입하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내수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며 소매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 1인당 GDP는 2023년 기준 U\$50,602(세계 31위, '22년 U\$51,400)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의 81.8%를 차지하고 있음.
- * 소매시장 성장전망(Euromonitor) : 2022년 2,199억 디르함 → 2023년 2,351억 디르함(8.4% 성장)
- 온라인 쇼핑몰, 차량 공유 플랫폼 카림(Careem), 식료품 배달 서비스, 이동 주요소 카푸(CAFU) 다양한 비대면 플랫폼을 확대하고, SNS를 통해 제품 정보를 수집하여 후기를 공유하고 있음.

GCC 내 물류 중심지 구축을 위해 활발한 건설 프로젝트 진행

- UAE는 역내 주요 항구, 역, 화물철도를 연결해 물류 허브로서 거듭나겠다는 목표하에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재 총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시공 중이거나 계획 단계임. 이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에티하드 철도 3단계' 프로젝트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간 승객용 고속철도 건설 및 UAE 내 11개 도시들 간 선로를 연결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향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1단계(stage 1) 종료, 2단계 95% 완공, 3단계는 구상 단계에 있으며 2024년 2월 중 입찰을 종료할 예정임.
- 한편, '에티하드 & 오만 철도' 프로젝트는 합작투자사를 설립해 오만 소하르항과 아부다비 알와트바를 연결하는 총 303km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현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임.

성장잠재력

[그림 16] 에티하드 철도 프로젝트



출처: KOTRA(원출처 Etihad Rail, The National)

태양광 및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가동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편

- UAE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략으로 주력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는 화석연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전력 공급원으로, 연중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용지 면적을 갖춘 UAE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이자 화석연료보다 생산 및 관리 비용이 저렴해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 아부다비는 Noor Abu Dhabi 발전소와 세계 최대의 축열식 태양열 발전소인 아부다비 the Shams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태양광 발전시설인 두바이의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발전소는 2030년까지 500억 디르함을 투자하여 전력 생산량을 현재의 950MW에서 5,000MW로 늘릴 계획임.
- UAE는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5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계획 단계에 있는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연간 650만 톤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두바이의 청정 에너지 비중은 현재 에너지 믹스의 15.7%에서 2030년까지 25%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두바이전력수자원청(DEWA)은 두바이 Hatta 지역 댐에 저장되어 있는 수자원을 활용해 GCC 국가 중 최초로 250MW의 생산능력과 1,500MW 저장능력을 갖춘 최초의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 중임. 최대 80년 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공사비 14억 디르함을 투자해 2024년 4사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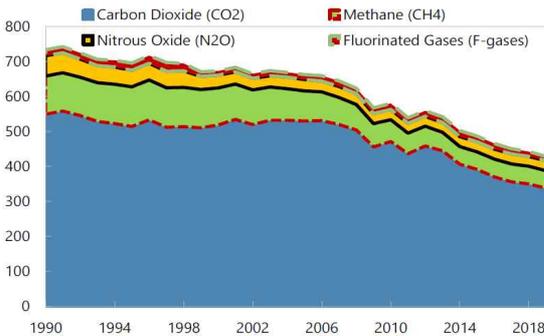
정책성과

2023년 환경분야 국제 정상회의인 COP28, 두바이에서 개최(11~12월)

- 유엔 기후변화협약(UN Climate Change Conference)의 당사국 총회(UNFCCC: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인 COP28이 금년 11월 30일~12월 12일 두바이의 Expo City Dubai에서 개최됨. UAE 산업 및 첨단기술부 장관이자 ADNOC의 CEO인 Sultan Ahmed Al-Jaber가 의장직을 맡는 금번 COP28은 중동에서 카타르에 이어 2번째로 주최되는 COP 회의로(UAE는 이번이 첫 의장국 자격), 아랍권 개도국의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애로 및 이슈가 국제 의제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²⁾
- GCC 산유국들의 에너지 산업은 탄소배출의 주 원인이며 UAE도 상위 탄소 배출국 중 하나이나, 탄소·메탄·아산화질소·불소화합물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UAE는 2005년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으며 2016년 파리 협정 서명, 2015년과 2020년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보고서 제출, 2023년 3차 NDC 보고서 제출 및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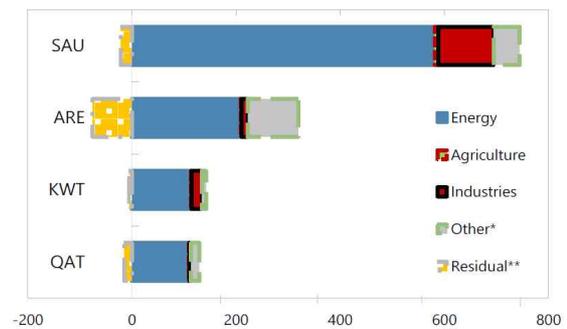
* 2015.12월 협정 당사국들은 COP21에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정기 모니터링을 받을 것을 규정한 의정서를 채택하였음.

[그림 17] UAE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이



출처: IMF staff calculations

[그림 18] GCC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 2021년 10월 'Net Zero 2050' 선언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 목표(70%)를 수립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태양력 등 비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2020년 2.4GW에서 2030년 14GW까지 확대할 계획임. 6,000억 달러(1,630억 달러, 2021년 비탄화수소 GDP의 52.1%)를 투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물을 31% 감축(감축 목표를 23.5%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ADNOC와 US Occidental*사는 2023년 8월 1일 탄소포집저장 및 DAC³⁾ 기술협력과 설비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향후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해 클린 에너지와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기로 함.

*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생산량 기준 2위의 에너지 화학기업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

2) COP 회의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COP1이 개최된 이래 매년 개최(2020년 제외)되어 세계 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3) DAC(Direct air Capture) : 거대한 팬을 이용해 주변 공기를 빨아들인 후 이산화탄소와 결합할 수 있는 화학제가 코팅된 필터를 사용하거나 용액을 활용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이산화탄소만을 분리해 수집하는 기술로,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획기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포집·저장·운송 비용이 톤당 600~1,000달러로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기술 처리비용인 톤당 15~80달러와 차이가 큼.

정책성과

연방노동법 개정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권 보장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 도모

- 2021년 11월 40여년 만에 UAE 연방노동법(Federal Decree Law No33)이 개정되어 2022년 2월부터 시행 중임. UAE 내 근로환경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팬데믹 기간 중 예외적으로 시행했던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환경을 공식화한 노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용계약 갱신 조건 완화, 수습 근로자의 계약 보전, 근로자의 사직기간 중 비자발급과 재취업 비용 보전, 연차휴가 사용 장려, 고용계약 해지 시 고용주의 사전통지 의무 강화, 퇴직금 관련 규정 강화, 초과근무 방지를 위한 규정 근무시간 도입 등을 포함, 근로자의 권익을 대폭 보장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또한 2022년 9월 발효된 외국인의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연방법 집행 규정(Executive Regulations)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여 비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함. 투자자, 사업가, 과학자와 전문가, 장학생 등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발급해 왔던 골든비자(기존 5/10년→10년으로 단일화)의 경우 발급조건에 큰 변화는 없으나, 이번 개편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부동산 투자를 통한 비자취득 기준이 대폭 완화됨. 기존 500만/1,000만 디르함이었던 부동산 포함 투자금 하한선이 200만 디르함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100% 자기자본 투자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개정해 국가 지정 UAE 은행을 통해 부분 조달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투자 진입장벽을 낮춤.
- 건국 50주년(2021년)을 맞아 출범한 국가전략 'Projects of the 50' 일환으로 2,3년 만기 거주비자를 그린 레지던스 비자(5년)와 2년짜리 일반 거주비자로 재분류함. 그린 레지던스 비자는 직군 1~3레벨에 속하는 대졸자이면서 고액 소득(월 15,000디르함 이상) 외국인 노동자, 프리랜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임. 일반 비자와는 달리 스폰서나 고용주 보증 없이 취득이 가능하며, 비자 만료나 취소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이직 목적의 구직 기간(6개월) 중 무비자 상태로 체류가 가능함.
- UAE 내 근로자는 배우자, 자녀, 직계가족을 동반해 그린 레지던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 자녀가 UAE 소재 대학에 진학한다는 조건 하에 부모의 스폰서 자격을 3년 연장해 주거나 자녀가 취업했을 때만 거주를 허가했으나, 법 개정으로 부모가 스폰서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미혼인 딸이나 장애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스폰서가 될 수 있음.
- UAE 인적자원 및 에미라티제이션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MOHRE)는 비자 신청자의 직업군을 9개의 직군*로 분류한 다음, 비자 신청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5개의 기술(skill)** 레벨로 분류하고 있음.
 - * 1.매니저, 2.스페셜리스트, 3.기술 전문 어시스턴트, 4.데스크 지원 스태프, 5.서비스 판매직, 6.숙련노동자(농수산업), 7.숙련 기능공, 8.기계 관리자 및 조립 노동자, 9.단순 노무직
 - ** 1.대졸자, 2.전문대 졸업자, 3.고졸, 4~5.최종학력 조건 없음
- 노동 관련 제도를 개정, 2016년 12월부터 직원 수 50인 이상 기업은 월급이 2,000디르함(약 60만원) 미만인 직원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고 단체 숙소의 위치와 위생, 의료 시설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 강화를 도모함.

정책성과

투자부 신설, 법인세 도입, 자유무역지대 활용으로 외국자본 유치 노력

- 2023년 7월 UAE 내각은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신설을 최종 승인하였음. 투자부는 토후국별로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투자유치 정책을 연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입안, 전략·입법·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초대 장관에는 아부다비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개발지주회사(ADQ)의 Mohamed Hassan al Suwaidi 사장이 임명됨.
- UA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연방 법인세법을 공표하고,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 회계연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논의 중인 세법 적용 기준과 절차(자유무역지대 내의 소득 기준, 신고 의무, 다국적기업 대상 세율 및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내각 결정 명령(Cabinet Decree)을 통해 확정지를 계획함.
- 역년제(1.1.~12.31) 회계연도를 채택하는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대상 법인은 UAE 연방 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에 법인을 등록하고 세금신고번호(Tax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받은 다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내에 회계보고서 제출, 세금 납부와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함. 과세소득이 일정 금액(37만 5,000디르함)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실질소득과 과세기준 소득의 차액에 9%의 세율(사우디아라비아는 20%)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함.
- 연방 법인세 도입 이전에도 일부 산업(천연자원 관련 및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 토후국별로 부과해 왔던 법인세 제도는 계속 유지될 계획으로, 천연자원 관련 비즈니스의 경우 연방 법인세는 면제, 토후국 법인세는 부과되며,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토후국 법인세(과세소득 20%)와 연방 법인세(과세소득의 9%)가 중복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 자유무역지대 입주 법인에 대한 과세와 예외적용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정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15~50년 간(연장 가능)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헌법상 법인세율은 55%까지 부과가 가능하나 세율은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관례이며, 정제나 제련기술 업체 등 기술기업이나 스타트업, 신사업 프로젝트 영위 기업의 최종 세율은 합의된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2018년 5%의 부가가치세(2020년 15%로 인상한 사우디아라비아 대비 낮은 수준)를 도입한 이래 토후국별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간접세 인상(정부 서비스 이용 수수료, 과태료, 임대세, 공과금) 움직임이 있음. 통합관세 의무는 연방 차원에서 CIF 조건(운임, 보험료 납부 조건) 기준으로 4%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 최종 목적지가 UAE 자유무역지대로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받고 있음. 사치재 수입에는 일반적으로 10%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 중임.
-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없으며, 특히 자유무역지대(약 30여개) 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 및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함.

정책성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석유화학 산업시설 고도화 및 기술 협력 증진

- UAE는 원유 매장량 기준 세계 5위로 천연자원이 풍부하나 부존량의 96%가 아부다비에 매장되어 있어 토후국별로 소득격차가 크며,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자 석유산업 고도화와 산업 다각화를 추진 중임. 이를 위해 다운스트림(정제,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와 신규 유전 탐사를 지속하는 동시에 금속 제련 등 비석유 제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ADNOC는 2022년 11월 1,500억 달러를 투자해 일일 산유량을 2027년(기존의 목표연도 2030년에서 3년 단축)까지 500만 배럴로 늘리고 LNG 수출규모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원유 생산과 정제과정에서 탄소저감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설 고도화도 추진 중임.
- 신재생에너지 투자, 글로벌 수소 밸류 체인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적용으로 현재 80만 톤에 달하는 탄소포집 및 저장 능력을 2030년까지 500만 톤으로 늘리고 메탄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다자간·양자간 경제협정 체결로 교역상대국 확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

- UAE는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및 GCC 회원국으로 21개국과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2021년 'Projects of the 50'의 일환으로 8개국(한국, 인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영국, 케냐, 에티오피아)과 양자 무역협정 체결 계획을 공표한 이후 2022년 인도(2월), 이스라엘(5월), 인도네시아(7월)와 2023년 튀르키예(3월), 한국(10월)과 연이어 양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함.
- CEPA는 상품 위주의 자유무역협정인 FTA에서 한 단계 나아가 금융, 의료 등 서비스업과 인력의 자유 교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약으로, UAE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석유 산업 육성을 위한 교역상대국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UAE는 수출대상국 1위이자 수입대상국 2위(2021년 기준)인 인도와 2022년 2월 18일 CEPA를 체결함. 양국은 무역, 투자, 헬스케어, 디지털 교역,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를 약속했으며, 5년 동안 1,000억 달러 상당의 상품무역 거래 및 150억 달러의 서비스 부문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동 CEPA는 2022년 5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22년 4~11월 중 양국 간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한 578억 달러로 집계됨.
- UAE는 2022년 5월 31일 이스라엘과 CEPA를 체결, 2023년 4월 1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96%에 달하는 무역장벽이 제거되거나 해소되어 농업과 의약품 부문(교역의 99%)이 수혜를 입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 통신, 관광 등 서비스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였음. 이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도 CEPA를 체결했으며 칠레, 베트남, 우크라이나, 케냐, 파키스탄, 태국과도 협정 체결에 대해 사전 협의 중임. 현재잠정 협정대상국의 시장 접근성, 무역 및 투자 잠재력, 무역장벽,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 다방면에서 사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정치안정

아부다비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연방정부 체제 유지

- UAE는 6개 토후(emir) 가문이 7개 토후국을 통치하고 있으며, 아부다비 군주 가문과 두바이 군주 가문이 핵심 가문으로 연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 아부다비 군주 가문 Al Nahyan⁴⁾ : 연방 대통령, 외교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직 세습
 - * 두바이 군주 가문 Al Maktoum⁵⁾ : 연방 부통령 겸 총리,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직 세습
- 1952년 7개 부족 통치자로 구성된 '걸프 지역 영국 보호령 연합 위원회' 설립 후, 1971년 영국군이 철수하며(영국으로부터 독립) 아부다비, 두바이, 아즈만, 푸자이라흐, 샤르자흐, 움 알-카이와인의 6개 토후국(emirate)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창설하고, 1972년 또 다른 토후국인 라스 알-하이마흐가 연합에 합류하며 지금의 UAE 연방 체제를 완성함. 연방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으나 각 토후국이 독자적인 군주정을 유지하며 개별적으로 독립된 국가체제를 이루고 있음. 연방 정부는 군사와 외교 관련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영역은 각 토후국별로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음.
- 1996년 5월 UAE 연방 최고회의(헌법에 명시된 최고 행정 및 입법기관)는 정식 헌법을 채택하고 아부다비를 연방 수도로 선언했으며, 1997년 12월 두바이 관할 군대를 통합사령부 체계에 편입하여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UAE 연방체제를 구축함. 관례적으로 아부다비 통치자가 연방 대통령(통합군 총사령관 겸직), 두바이 통치자가 연방 총리(부통령직 겸직)로 선출됨
- 경제규모가 가장 큰 아부다비와 두바이 간 권력이 적절히 배분된 상황에서 UAE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부다비가 국방, 식량, 안보면에서 실질적인 리더로서 다른 토후국들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연방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리스크는 매우 낮은 편임.
- 최고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최고통치자 위원회(Supreme council)는 7개 토후국 통치자들로 구성되어 공식 회의(연 1회)와 비공식 회의(수시)를 개최하고 5명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안건을 최종 가결함(아부다비 통치자와 두바이 통치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
- 2022년 5월 아부다비 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 서거 후 이복동생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이 연방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2023년 3월 대통령의 장남인 Sheikh Khaled al Nahyan이 아부다비 왕세자로 임명되는 한편, 대통령의 형제인 Sheikh Mansour bin Zayed al Nahyan과 두바이 군주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공동으로 연방 부통령 겸 총리직을 수행 중임.
 - * 셰이크(Sheikh)는 왕 혹은 통치자를 의미하며, 주로 왕족을 높여 부르는 경어로 이름 앞에 붙임
- 아부다비 군주 계승의 유력 후보자였던 Mansour 부통령이 왕세자 책봉에서 탈락하는 대신 두바이 군주가 독점하던 연방 부통령에 공동 임명됨에 따라 아부다비의 상대적 우위를 짐작하는 견해가 있으나, 실질적인 정부 정책 결정 권한은 총리와 장관에게 있음. 두바이 군주는 연방 총리로서 부총리인 Mansour 부통령보다 서열이 높아, 금번 인사는 두바이의 상대적인 권력 약화를 의미하지 않음.

4) UAE 연방 최고 가문으로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및 UAE 연방국가 수립 시 핵심 역할을 담당함.

5) UAE 연방의 양대 가문으로 1833년 아부다비 가문에서 분가하여 두바이로 이주한 이후 19세기 말 이후부터 자유 무역을 주도하여 두바이가 UAE의 관광·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사회안정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높은 가계소득으로 군정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체제 전복 위험은 낮은 편

- 아부다비의 주도로 연방 정부 체제하에 코로나19 확산의 선제적 대응,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경제정책으로 팬데믹 기간 중 연방의 존립 필요성이 재확인됨. 여타 토후국들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 악화로 아부다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절대 군주정 체제 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률과 높은 가계 소득수준으로 군주정에 대한 충성도나 신뢰가 높은 편임. UAE 군주들과 정부는 종교적 보수성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낮은 편이며, 여당이 존재하지 않는 절대 군주정으로 군주 일족이 정보기관, 군대, 경찰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반정부 세력의 결집 가능성이 매우 낮음.
- 토후국 간 소득 격차 확대에 의한 불만의 증대가 잠재적 불안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부다비 주도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과 식료품 보조금제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어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소수이며, 무슬림형제단 및 AI-Islah(현지 이슬람주의 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검열을 시행하고 있어 내부 테러 위협이 낮은 편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시민참여 및 언론 자유는 제한적

- UAE는 정부 효율성 및 정치적 안정성 면에서는 우수하나, 시민의 정치 및 정책 참여, 표현의 자유 등은 낮은 수준임.
-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는 180개국 중 27위를 차지(높을수록 투명)하는 등 중동 군주정 국가 중 거버넌스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부의 공권력 확대, 비판에 대한 정부의 비관용적 태도, 언론의 자기 검열로 정부의 활동 내역, 정책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있음.
- 2023년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UAE는 180개국 중 145위에 머물러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22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정치적 자유나 정치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서 UAE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33위로 하위권에 그쳤으며, 민주주의 발전 단계 중 전제주의(authoritarian)에 가까운 국가로 분류됨.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중위권(3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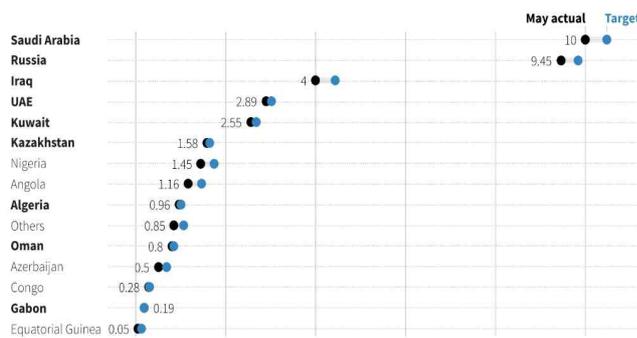
- Moody's는 2023년 3월 보고서에서 UAE에 대한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 (Moderately Negative)으로 부여하였으나, 세부 항목별로 등급 편차가 큰 편임. Moody's는 ESG 요소가 현재 UAE 정부채권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환경: 4등급)** 종합 등급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경제 다변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석유 의존도, 담수화 시설에 의존한 수자원 공급,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환경 리스크 민감도 증가(해수면 1m 상승 시 인구의 10% 위험 노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 2등급)** 낮은 청년 실업률, 효율적인 노동 정책이 자국민의 노동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비석유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배구조: 1등급)** 국가의 경제지표, 정부의 정보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공개 정보가 많아 보완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연방 정부의 외국인 투자·사업환경 개선과 경제 다변화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정부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제도 및 거버넌스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GCC 회원국 간 협력 강화, 전통적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경제적 경쟁 관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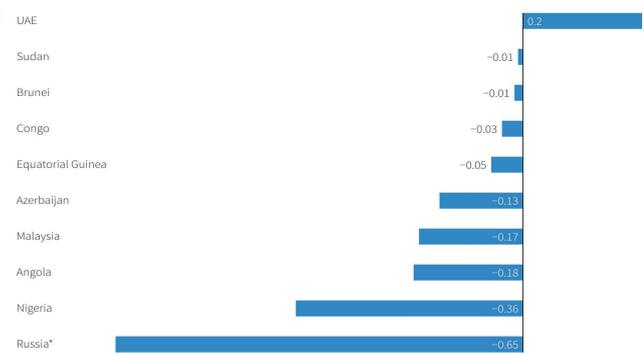
- 막대한 원유수출수익을 바탕으로 주변 아랍 국가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UAE는 1967년 석유수출기구(OPEC, 1960년 창설) 가입, 1969년 이슬람회의기구(OIC) 창립 멤버, 1971년 아랍연맹(Arab League, 1945년 설립) 가입, 1981년에는 걸프협력위원회(GCC)를 결성하는 등 권역내 정치적·경제적 공동 협력체제를 이어오고 있음.
- 전통적인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최근 역내 주도권 경쟁 및 OPEC 협의 내용에 이견을 보이는 등 양국 간 견제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걸프 중앙은행 소재지로 결정되자 UAE는 이에 반발하여 GCC 통화동맹을 탈퇴했으며,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지 않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 계약 체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공표하자 UAE도 '프로젝트 50'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두고 주도권다툼을 벌이고 있음.
- UAE는 2021년 7월 OPEC+ 회의에서 각국의 원유 생산량을 재산정해 쿼터를 재설정할 것을 주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합의안에 반대하여 협상을 결렬시켰으며, 202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일평균 200만 배럴 감산 결정에도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함. UAE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석유 증산을 추진해 온 반면, 사우디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감당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유량을 통제해 유가 하락을 막는 전략을 고수함에 따라 유가 방어와 생산량 쿼터에 대해 OPEC 내에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9] OPEC+ 쿼터 대비 실질 산유량



출처: Reuter(원 출처 IEA, OPEC secretariat)

[그림 20] 2024년 OPEC+ 원유생산 계획(백만 배럴/일)



- 2022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중국-아랍 고위급 회의에 UAE 대통령이 불참하고 2023년 1월 UAE가 주최한 중동 정상회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참석하지 않는 등 외교적 긴장이 존재함. UAE는 미국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2020년 8월 13일)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최근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함에 따라 협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제관계

미국, 중국과 안보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실리적 외교 노선을 추구, 이란과는 견제 관계

- UAE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동맹국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등 이란과 적대적 관계를 이어왔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안보 협력자였던 미국이 중동 내 군대 철수, 자국 내 에너지 자체 생산 증대 등으로 중동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역내 제1의 군사 강국인 이란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양국 간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음.
- 카타르의 친이란 정책, 무슬림형제단 비호로 인한 갈등으로 2017~21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대 카타르 단교 조치에 동참했던 UAE는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와 함께 GCC 정상회의에서 카타르와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복원하였음. 2023년 6월 아부다비 주재 카타르 대사관과 두바이 주재 카타르 영사관 운영을 재개한 UAE는 이번 외교관계 복원이 시아파의 맹주 이란을 견제하고 GCC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UAE는 지정학적으로 이란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다수의 이란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특히 두바이는 경제적으로는 이란과 활발하게 교류 중임. 이란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체제 불안정성,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지원 등 잠재적 불안요소가 상존하여, UAE는 이란을 견제코자 여타 아랍 수니파 국가와의 동맹 강화, 안보 동맹 등도 추진 중임.
- 1974년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후 UAE는 중동 내 미국의 대표적 우방국이자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로, 다수의 미국 기업이 UAE에 진출해 있는 등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이어옴. 2020년 10월 전략 회담(US-UAE Strategic Dialogue)을 통해 양국간 무역 및 안보 협력 프레임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특히 2019년 미국과 안보협력협정(DCA)을 체결하여 군사적, 정치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음. 현재 아부다비 외곽 Dhafar 공군 기지에 5,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2021년에는 인도, 이스라엘, UAE, 미국 간 I2U2(각 국가의 영문 이니셜)의 외교 협력체를 결성하였음.
- UAE는 중국(3위 수출대상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UAE를 중동 지역내 일대일로 전략 추진기지로써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 중국과의 교역은 원유 수출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2022년 대 중국 비석유 수출액은 10억 달러로 총수출액 426억 달러의 2%) 2023년 9월 양국간 다수의 개별 협약을 체결하며 비석유 부문의 상호 무역거래 활성화를 약속함. 중국은 2021년 기준 UAE의 3위 FDI 국가로, 투자 분야는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음.
- 2023년 3월 29일 중국 국영 석유기업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상하이 석유·가스거래소를 통해 UAE 산 LNG 수입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였으며, 이는 중동산 에너지 거래가 중국 위안화로 결제된 사상 최초의 사례임. 매입규모는 LNG선 1척분인 약 6만 5,000톤(7천만 달러)으로,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체제의 핵심이자 중동 지역 상거래 허브인 UAE에서 거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아울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세계 최초로 중국 시노팜 백신을 공식 승인 하고 접종했으며, 2019년 5월에는 중국 화웨이와의 5G 기술분야 협력을 통해 중동 최초로 5G 무선통신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 고려 시 외채상환태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 2023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UAE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334.7억 달러(단기 35.7억 달러, 중장기 300억 달러)이며, 연체율은 0.02%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주요 ECA들은 UAE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 인수 가능

- 미국 US EXIM, 영국 UKEF, 독일 HERMES 모두 UAE의 단기 및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인수 가능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3.10)	2등급(2022.01)
Moody's	Aa2 (2023.03)	Aa2 (2021.05)
Fitch	AA- (2023.08)	AA- (2022.10)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기존의 신용등급(투자적격) 계속 유지

- OECD는 2013년부터 UAE에 대해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UAE는 2022년 산유량 증가 및 고유가 지속, 민간소비 증가,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등으로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보였으나, OECD는 여전히 높은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와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하여 기존 등급과 동일한 2등급을 유지함.
- Moody's는 2023년 3월 역내 지정학적 위험 및 석유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정보공개 부족에도 불구하고 높은 1인당 GDP 수준(2022년 51,400달러), 풍부한 원유 가채매장량,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제도 개혁 노력 등을 감안하여 UAE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함. Fitch 역시 2023년 4월 UAE에 대한 기존 등급(AA-)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UAE 경제는 2021년 국내외 경기 회복 등으로 4.4%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22년에는 산유량 증가 및 고유가 지속, 민간소비 증가,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부동산 부문의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7.9%의 고성장을 기록함.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유가 하향 안정세로 인한 상품수출액 감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설비/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낮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연방 대통령 겸 아부다비 군주 서거 후 이복동생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2023년 3월 대통령의 장남이 아부다비 왕세자로 임명되고 형제인 Mansour bin Zayed al Nahyan이 UAE 부통령에 임명됨.
-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동산 에너지 거래에 사상 최초로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는 등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전통적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중동 지역 내 경제적 지배력의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